



사진좌로부터 이정락 주임, 김종수씨, 오제천 과장, 성경옥씨, 정광남씨



충남지부 서무과

新春元朝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希望과 實現의 새 역사가 밝아오니 온 누리에 따사롭고 平和롭게 펼쳐지리니 이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 축복일찌니!!

루소(Rousseau)는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自由이며 동시에 평등이다” 천명하였고 링컨(Lincoln)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삼위 일체의 實現으로 새 역사의 장을 열었다.

참으로 장한 일이다.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메아리에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화답으로 선택하였으니 이는 마치 목탄

으로 그린 태생처럼 사물의 골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또한 수목의 동양화인듯 한없이 넓고 넓은 여백에 수많은 대화와 화합의 속삭임으로 설계하여 健勝을 祈求하는 元祖.

우리지부는 아직도 유혹의 거센숨결, 드높고 뜨거운 태양이 그을리던 푸른 유월을 연상케 한다.

헝크러진 머리를 쓰다듬고 옷깃을 여미며 지난날을 거울삼아 재기를 노리는 빛나는 그 눈동자에는 우리가 맡은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필코 선구자가 될것이다.

우리의 서무과는 작은 인원이지만, 서로

가 서로를 위로하며 밝고 명랑하게 “건강하십니까?”로 시작하여, 하루의 일과를 알차게 처리해 가는 것을 보면 화합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곤 한다.

우리의 노고를 항상 생각하며 하루의 일과를 일일이 점검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며 피곤을 잊게 해주는 우리 오제천 과장님. 전직원들의 상담요원 이며 개개인의 일을 마치 당신의 일로 생각하고 도와주며 부담없이 웃음짓는 인자한 모습!

다른직장 다른사람보다 앞서려면 항상 한발자국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며 모르는 것을 언제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하신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우리는 언제나 평민과 더불어 행동하며 특출하다는 사람을 백보 전진케 하는것 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한걸음씩 전진케 하고자 과묵하게 실현해 나간신다.

이정탁 주임은 항상 깔끔한 성품에 모든 일처리를 아주 야무지고 빈틈없이 하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열의로 우리 규정집을 익히면서 은근히 “까다로운 감사관 같지 않느냐?”며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아는데 역시 자상하고 가정적인 애처가 임에는 틀림없지요.

운전원 김중수 기사님은 동료 직원간에 도 얼굴을 잊어 버리겠다고 말할정도로 아침일찍 출발, 밤늦게 시군 읍면의 낯선 길을 출장 업무에 이동 검진버스를 몰고 쿿

노래를 부르며 피로를 달래는 능숙한 기사님이시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낚시대를 등에 메고 혼자서 목적지를 향하는 고독과 강태공이다.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인 관리원 정광남 주사는 출장도 다니고 청사도 관리하는 등 일인 이역을 맡없이 담당해 내며 매일 07:00-07:30분이면 출근하여 청사를 말끔히 다듬고 어루만지는 노력파.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부부가 합심 맞벌이로 묵묵하고, 알뜰한, 그리고 부러울 정도로 성실한 가장이시다.

서무과의 꽃인 성경옥 양은 별칭 성주사로 통한다. 매일 손님접대 및 입금 인출의 잡다한 업무에 분주하기만 하다.

과의 자랑에 대한 원고 부탁을 받고 서투른 글이나마 성의껏 잘 쓰려고 밤잠을 설치며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과는 아빠처럼 인자하고 격려로서 이끌어 주시는 과장님 이하 단출한 식구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맡은바 업무에 열중한다.

우리는 언제나 한가족. 찬 서리에 곱은 손을 마주 잡읍시다. 우리들의 마주 잡은 손, 마주 잡아 하나로 뭉친 마음이 저 눈서리를 헤쳐 나가노라면 거기에 뜨거운 꿈이 있으리니 그날이 올 때까지 깊이 참고 정진 정진합시다.

건강소식 가족여러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서기 성경옥)